"새만금 수변도시 재검토"

군산시 입장 발표… "신중하고 세심한 사업추진 촉구"

지역간 갈등·반목·불신 우려… 수질개선책 필요 주장

'기회의 땅이며 희망의 땅인 새만금 개발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신중하게 검토 돼야 한다'

군산시가 지난 29일 군산시 브리핑룸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에 대해 신중하고 세심한 재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재 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중인 가운데 수변도시 건설은 지역간 갈등과 반목, 불신을 키울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새만금 개발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본계획을 재검토를 천명했지만 정작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시장은 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새만금 수질은 6등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변도시 조성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변도시의 경우 수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산업단지 조성, 국제공항, 신항만, 잼버리 지구 등 기본 인프라 사업에 집중해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새만금의 실질적 선도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코로나19이후 세계경제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대에 성급한 사업결정은 인근 지자체의 인구유출과 도심공동화현상 등 새만금 주변 자치단체의 공동번영에 역효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당장 성급한 사업 추진보다는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새만금 개발사업은 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세심하고 신중한 검토 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가 지난 29일 군산시 브리핑룸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에 대해 신중하고 세심한 재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색다른 관광명소에서 멋진 인생샷 어때요

별빛다리, 데크광장 · 비응마파지길 등 관광객 유혹

군산시가 고군산 시간여행마을, 은파호수공원, 고군산 군도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진정, 안정기 돌입에 대비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추진, 관광객들이 시간여행마을 뿐만 아니라 은파호수공원, 고군산군도와 연계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과콘텐츠를 활용한 포토존 조형물 설치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곳은 은파호수공원 별빛다리, 비응도 주변 비응마파지길, 고군산군도 포토존 조형물(무녀도, 장자도 인근) 등 3곳이다.

기존 은파순환도로 차량 매연을 피하고 수변을 따라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은파호수공원 별빛다리는 올해 4월에 개방,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제방 종점부에서 생태습지까지 길이 1.1km, 폭 3m로 입구 광장에 별빛다리 조형물, 데크광장, 쉼터 등이 있으며, 야간투어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관조명도 설치 했다.

특히 별빛다리 중간에 6m 길이로 5개소에 설치된 투명 스카이워크는 물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은파호수의 멋진 경관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편익시설(비응도동 37번지 일원)은 비응항 주변에 조성된 바다 체험 휴양공간으로 비응도 모래사장과 비응공원을 연계하여 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데크산책로(비응마파지길), 전망 쉼터 및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했다.

밤이 되면 이곳은 더욱 색다른 매력이 담긴 명품 산책로로 바뀐다.

시시각각 바뀌는 아름다운 색채가 데크길을 수놓고 바다에 비친 조명은 멋스러움을 더한다. 야간경관조명은 여름 밤바다의 경치와 어우러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비응항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한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 꼭 한번 다녀간다는 고군산군도 일원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멋진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했다.

고군산군도내 무녀도리 쥐똥섬 인근에는 바닷길이 열리는 무녀도 쥐똥섬을 담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초승달 조형물, 장자교에는 할매바위 전설을 모티브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다정하게 앉아 있는 '할매와 할배', 장자도 돌섬 인근에 천년나무 아래에서 과거를 보러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도하는 할머니를 형상화 한 '천년나무와 할매'를 설치했다.

조성된 포토존은 인근 바다와 섬이 만드는 멋진 풍경과 어우러져 많은 사진작가들과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김연식 의원 김충영 의원 유재구 의원 박철원 의원

김연식 vs 유재구 양자 대결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자리 놓고 자천타천 물밑경쟁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견인하게 될 의장 선정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7월 2일 치러지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시의회는 전·후반기 의장을 갑·을지역구(총선기준)에 따라 선정해 온 바 있어 후반기에는 을지역구 출신 의원이 의장직에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자타천으로 의장직 출마가 거론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연식 의원과 유재구 의원이다. 김연식 의원의 런닝메이트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충영 의원이, 유재구 의원의 동반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철원 의원이 함께한다.

낭산면·망성면·여산면·금마면·왕궁면·춘포면·삼기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연식 의원은 3선의 관록으로 의장직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 김연식 의원은 다선의 경쟁력으로 지역민의 소통창구 역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초선이었던 제6대 의회에서는 후반기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7대 의회에서는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아 지역발전의 초석을 닦은 바 있다.

김 의원과 손을 잡고 부의장에 도전장을 던지려는 김충영 의원은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김충영 의원은 3선으로 보건복지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역량을 강화해 온 대의정치의 베테랑이다. 김 의원은 자전거를 이용해 주민과 만나며 각종 민원을 해결하며 자전거 의원으로 불릴 정도로 신망이 높다.

대항마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재선의 유재구 의원은 무난한 의정활동과 덕망을 바탕으로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유재구 의원은 동산동·영등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행정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견인하며 집행부에 대한 대안제시와 감시로 시정 발전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의원의 파트너로 나서는 박철원 의원은 40대 젊은 피로 의회의 화합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박철원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며 시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건설위부위원장, 익산시 결산심사 대표위원, 예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민의를 대변해 왔다.

시의회는 25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의당 2명, 무소속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더불어민주당 내부 결속과 함께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정가의 관심이 높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인구의 날' 인구정책 공감의 장 마련

군산시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에 대한 시민주도형 인구정책을 발굴하는 자리가 열린다.

군산시는 7월 11일 '제9회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의 날 제정 의미를 알리고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0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토론회 참여는 군산시민과 관내 소재의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군산시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시민들과 인구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시민 주도형 인구정책을 발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고등학생, 대학생,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각 연령층의 관심사와 욕구를 반영한 인구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소통을 통한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군산시는 저소득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난 27일부터 시행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에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써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1955. 12. 31. 이전 출생), 만 6세 미만 영유아(2014. 1. 1. 이후 출생자),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팔봉 · 여산 군경묘지 익산시, 노후 비석 교체

익산시는 팔봉·여산 군경묘지의 노후된 비석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익산시에 따르면, 노후 비석 교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진행됐다.

시는 참전 군인·경찰 등 172위가 안장돼 있는 팔봉·여산 군경묘지의 비석이 제작된 지 40여년이 경과해 녹슬고 퇴색해 비문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이를 교체했다.

노후 비석은 군·경 유족들의 뜻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부터 교체 사전 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약 3개월에 걸쳐 군경묘지 172개 비석을 촬영해 비문의 한글화 수작업을 펼쳤다.

또 유가족 확인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까지 우편물, 시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집중했다.

이후 제작·설치 업체와 수차례 사전 준비를 거쳐 지난달 초부터 비석 제작에 돌입해 교체를 대부분 완료했다.

/익산=장양원기자